

# 대만학계의 신석기시대 연구 동향과 전망

원중호\*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대만 신석기 고고학 |
| II. 대만 고고학 | IV. 맺음말         |

##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대만 신석기시대 고고학의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방법론적 전환과 학문적 의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만의 신석기 연구는 20세기 초 일본 학자들의 기초 조사에서 출발하여, 해방 이후 대만과 중국 학계의 본격적인 발굴·분류 작업을 통해 학문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1980년대 이후 장광직(張光直)을 중심으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화분 분석, 유전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론이 도입되면서 연구의 초점이 단순한 문화 유형 비교에서 생태 복원과 인구 이동의 구조적 해석으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는 첫째, 대만 신석기 고고학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정리하여 동아시아 해양 문화권 비교 연구의 기초를 마련한 점, 둘째, 고고학·유전학·생태학의 융합 분석을 통해 대만 원주민의 기원과 교류망의 복합적 구조를 해명한 점, 셋째, 과학기술의 도입이 촉진한 학제적 전환의 의미를 제시한 점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대만 신석기 연구가 환경·유전자·교류 네트워크를 통합한 거시적 해석으로 발전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대만 고고학의 학문적 자율성과 해양 문화사적 위상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 주제어: 대만 신석기시대, 고고학 연구사, 장광직, 해양문화권, 학제적 접근

\* 사) 동아시아 고고학 연구소 연구원

## I. 머리말

최근 대만 고고학은 고고학적·인류학적 연구방법론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연구 방향이 한층 다양화되고 있다. 기존 고고학이 서구 중심의 방법론과 문화이해 체계를 기반으로 발전한 데 반해, 대만 및 동아시아 학자들은 탈서구적 시각과 국제적 관점에서 문화현상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국수주의적 구석기 이해를 넘어서 탈식민주의적 해석을 모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학문적 객관성과 문화 다양성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대만 신석기 고고학 연구에는 인류학, 언어학, 해양학 등 인접 학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만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과학적 고고학 연구는 일본 인류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45년 대만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일본 학자들이 차츰 대만을 떠나면서 중국 고고학자(이제 등)들이 대만으로 이주하였다. 대만에 고고학이 학문으로 정착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들 중국 본토 출신 학자들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들의 도래는 일본 학자의 철수로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던 대만 고고학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臧振華, 2007, 30 - 37).

대만 각 지역을 수년간 답사하며 체계적인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49년 말부터 다수의 주요 신석기 유적이 발굴되었다.<sup>1)</sup> 대만에서 활동한 중국 고고학자들의 주요 업적은 대만 섬 북부의 원산(圓山)과 중부의 수미계반(水尾溪畔) 유적 일부 지층에서 퇴적된 문화층 단계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대만 북부와 중부지역 선사 문화의 층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술적 틀을 제시한 것이다. 이 연구는 대만 선사 문화의 연대 설정을 가능하게 하였고, 지역 내 문화층 순서를 확립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張光直, 1987, 1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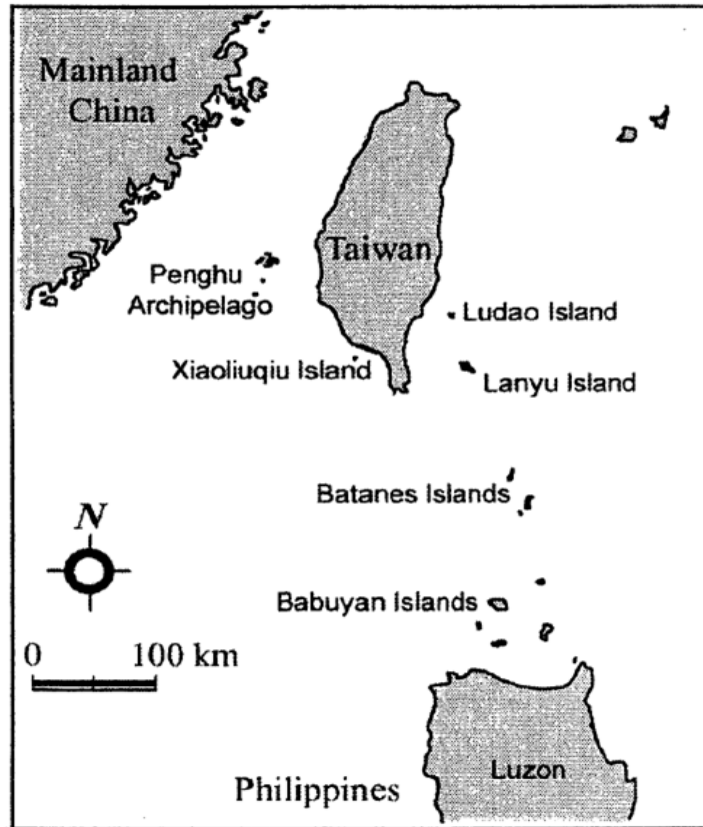
1) 발굴된 주요 유적은 타이베이시(台北市) 부근의 원산(圓山), 구제산(狗蹄山), 십삼행(十三行), 도원(桃園)의 첨산(尖山), 신주(新竹)의 홍모항(紅毛港), 곡울(曲栗)의 신항(新港), 대만 섬 중부의 영포(營埔)·철침산(鐵砧山)·남투(南投)의 대마(大馬)와 동각(洞角), 대만 섬 남부의 육갑정(六甲頂)·삼분자(三分子), 가오슝(高雄)의 반병산(半屏山), 핑둥(屏東)의 간정(墾丁)과 마가구사(瑪家舊社), 그리고 동부의 베이난(卑南) 및 화롄(花蓮)의 평림(平林) 유적 등이다.

본 연구는 대만 신석기시대 유적의 문화적·공간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만 도서 연해를 통한 원주민의 해상 이동과 기원 확산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가 중국의 영향을 중심으로 대만 문화를 종속적으로 해석해 온 데 비해, 본 연구는 영포·비남·기린 등 주요 유적의 과학적 분석 자료(방사성탄소연대, 유전자, 화분 분석 등)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대만 고고학의 독립적 문화 형성과정을 밝혔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단선적 문화 전파론을 넘어 해상 네트워크에 기반한 상호문화적 전파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의 주요 성과로는 첫째, 동아시아 해양문화권 내에서 대만 신석기 연구의 자율적 위상을 확립하였으며, 둘째, 과학적 방법론의 통합을 통해 고고학과 인류유전학 간 융합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만 고고학의 독창성은 단순히 양안(兩岸) 관계의 정치적 맥락에 한정되지 않으며, 과학기술 기반의 다학제적 해석을 통해 아시아 해역 문화사의 핵심 고리로 재조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II. 대만 고고학

### 1. 연구사

대만은 아시아-태평양 해역의 교차점이자 남도어족(南島語族)의 발원지로 주목받으며,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의 문화사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도면 1> 대만 및 주변 도서 지역의 지도

대만 고고학의 주요 연구 주제인 분섬 거주 원주민의 역사는 매우 복잡적이다. 대만 원주민은 중국 본토 한족과의 동화(同化) 정도와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주요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크게 고산족(高山族)과 평포족(平埔族)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고산족은 전통적으로 농경과 수렵에 종사하며 독자적인 문화와 제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와 1945년 이후 중화민국 통치하에서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생활양식과 문화양상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당국의 성급한 한화(漢化) 및 근대화 정책은 고산족의 권리를 다수 침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만 사회 내 원주민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고산족 청년층을 중심으로 ‘원주민 권리 회복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현재 대만(중화민국)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여 고산족의 권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화민국 정부는 고산족을 ‘대만 원주민족(臺灣原住民族)’으로 공식 인정하고, 그들에게 ‘원주민 적(籍)’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평지에 거주하던 대부분의 평포족은 한족(漢族)과의 통혼과 교류를 통해 한화가 진행되면서 한족계 중국인과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대만 북부 해안, 서북부 평원, 동부 해안지역, 그리고 푸리(埔裏)와 일월담(日月潭) 일대에 거주한다. 대부분 한족 문화에 동화된 평포족과 달리, 고산족은 일정 부분 독자적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 연구의 가치가 크다.

최근 대만 원주민문화의 기원과 변화 양상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고산족 문화와 중국 고고학 자료의 비교 연구뿐 아니라, 평포족 내부의 문화 변화 양상에 대한 세분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고고학 연구(陳存洗 1994.103-109)에 따르면, 고산족의 주요 분포 지역은 대만 중앙산맥과 동북부 지역의 남북 골짜기, 해안지역, 그리고 난서(蘭嶼) 일대로 파악된다. 고지대라는 거주 환경의 특성상, 한족 문화와의 동화 시기와 정도가 불분명한 고산족 집단이 다수 존재한다.

민족학 연구(廖楊, 2000, 2001)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까지도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상당 부분 보존하고 있다. 특히 평포족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한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역과 집단에 따라 상이한 문화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의 국가 공원이 위치한 켄딩(墾丁) 유적은, 대만 섬에서 일본인에 의해 정식으로 고고학 발굴과 조사가 이루어진 초기 유적 중 하나이다. 초기 일본 인류학자들이 주목한 연구 주제는 대만 원주민문화의 중국 본토 기원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연구 결과물 또한 중국 본토와의 관계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sup>2)</sup>

1931년과 1932년, 일본의 인류학자 네노조 우츠리카와(移川子之藏)와 민속학자 미야모토 노부히토(宮本延人) 등에 의해 세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

2) 그러나 발굴을 주도한 일본인 학자들이 대부분 정규 고고학자라기보다는 인류학과 민속, 민족학 전공자들로 정식 고고학 발굴보다는 연구 조사로서의 의미가 더욱 크다.

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약 30기의 매장 석관(石棺)과 다수의 토기, 석기, 골기(骨器), 조개껍데기, 동물 뼈조각 등이 출토되었다. 이후 일본 인류학자들은 대만 광복 이전까지 고쿠부 나오이치(國分直一)를 중심으로 대만 전역에서 고고학 지표 조사와 발굴을 지속해서 수행하였다.

1943년, 동식물 연구자이자 인류학자인 일본인 타다오 카노(鹿野忠雄)가 발표한 두 편의 논문, 「臺灣先史時代文化層」과 「臺灣先史時代之文化層」은 일본 점령기 대만에서 이루어진 고고학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는 대만 섬에서 발견된 유물의 형식과 유적 구조의 지리적 분포를 분석하여, 대만 선사 문화가 ‘승문(繩紋)’, ‘망문도(網紋陶)’, ‘흑도(黑陶)’, ‘유단석분(有段石簪)’, ‘원동산(原東山)’, ‘거석(巨石)’, ‘필리핀 철기’ 등 일곱 개의 문화층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sup>3)</sup> 이러한 일본 학자들의 주장은 이후 대만 고고학자들에 의해 재검토되었으며, 대만 원주민의 기원 및 ‘금석병용문화(金石並用文化)’의 실체를 포함한 연구 주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그 범위와 성격이 체계적으로 재정립되었다.

대만 고고학의 연구 성향과 발전 과정은 인류학자 장광직(張光直)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일본 학자와 중국 본토 학자들이 자국의 시각에서 접근하던 대만 고고학 연구와 해석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에 본고는 대만 고고학이 과거 어떠한 연구 대상과 사회적·정치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누구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향후 연구 주제와 발전 양상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대만 고고학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이기성(2020, 461-482)의 논문이 있으며, 최근에는 국립대만대학교 인류학과 노유군(盧柔君) 교수가 대만 고고학 연구의 변화 양상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외국 연구자가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루면서, 「대만 고고학의 형성과 변천: 시대 변화에 부응한 학문적 발전사(臺灣考古學的誕生與變革: 與時代共進的考古學發展史)」라는 주제로 대만인 학자가 국내에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소개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盧柔君, 2025a, 1-33)

3) 가노는 대만 선사 문화의 기반이 중국문화에 있다고 보고, ‘승문’, ‘망문도’, ‘흑도’, ‘유단석분’ 문화층이 순차적으로 대만으로 전래하여 중국문화를 대표한다고 해석하였다.

## 2. 연구 성향

중국 고고학자는 19~20세기 대만 고고학의 연구 주제와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sup>4)</sup> 특히 당시 중국에서 건너온 원로학자는 대만 고고학 전공자들에게 직접적인 학문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1964년에서 1965년 사이, 장광직은 국립대만대학교와 미국 예일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한 대만 선사 유적 연구계획을 주도하였다. 비록 초창기 연구였으나,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대만 고고학의 학문적 발전에 있었고, 그 결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만 고고학 부흥의 기반이 된 선사 문화 연대 설정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王新天·吳春明, 2007, 30-37)

1960년대 중반에 진행된 이 연구계획은 대만에서 처음으로 고고학 발굴이 다른 학문 분야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수행된 사례였다. 지질학, 토양학, 물리학, 식물학 등 다양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유적의 과학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당시 대만 고고학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학제 간 연구로, 선사 원주민의 기원, 종족 간 혈연관계 등 다방면에 걸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서구의 선진 고고학 개념인 주거지 고고학,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화분 분석, 토기 성질 분석 등의 방법이 대만 고고학 연구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 최초로 ‘선도문화(先陶文化)’가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대만 섬에 이미 갱신세 시기부터 인류가 거주하였음을 입증하였으며, 인류 거주 시기를 기존보다 1만 년 이상 앞당겼다.

1970년대에도 대만 고고학은 새로운 진전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탁대계화(濁大計畫)’이다<sup>5)</sup>. 공식 명칭은 「台灣省濁水溪與大肚溪流域自然史與文化史料研究計畫」<sup>6)</sup>로, 장광직의 주관 아래 대만 행정원 국가과학위원회, 미국 국가과학기금(NSF), 하버드 엔칭연구소(Harvard - Yenching Institute)의 지원으로 추진되었다. 대만 중앙연구원, 국립대만대학교, 예일

4) 국민당 정부에 의한 계엄령이 끝난 1990년대 중후반까지도 ‘중국 본토인’을 대표하는 한족과 ‘대만 본토인’을 주장하는 원주민들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남아있었다.

5) [타이완(台灣)성 중부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

6) 대만성 지역 濁水溪과 大肚溪 유역의 자연사 및 문화사와 관련한 합동 조사 연구계획이다.

대학교가 공동 참여한 이 연구의 목표는 탁수(濁水) 및 대두(大肚) 유역의 고대인과 현대인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복잡한 환경과 자원 조건 속에서 형성된 문화를 다양한 학문적 방법으로 해석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만 선사 문화 연구의 방향 전환에 중요한 학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1980~1990년대에는 장광직을 중심으로 ‘대만 선사 원주민의 기원과 확산’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그는 1987년 「남방민족고고(南方民族考古)」 창간호에 〈중국 동남 해안 고고학과 남도어족의 기원 문제〉를, 1989년 「고고학(考古學)」 제6기에 〈신석기시대의 대만 해협〉을 발표하여 ‘대만 해협 고고학’이라는 새로운 지역 개념을 제시하였다. 두 논문에서 그는 선사 시대의 대만 해협 고고학이 양안(兩岸) 고고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1995년에는 영문 논문을 통해 대만 해협 고고학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며, 해협 양안의 고고학적 증거가 선사 시대부터 역사 시대까지 두 지역의 사회·문화적 과정을 분리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이 지역의 고고학이 중국, 동남아시아, 태평양 고고학과 밀접히 연관된 학술 영역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신석기시대 남도어족의 기원 연구와도 관련되어 국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제한된 자료와 정치적 제약 속에서도 장광직의 ‘대만 해협 고고학’은 동남아 연해 지역 고고학의 미래를 제시한 학제 간 접근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국 화남지역의 고고학 발굴이 화북에 비해 부족하였던 것처럼, 동남아 연해안 지역 또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하였다.

장광직(1989)은 ‘동남아시아 연해안 고고학’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이 지역의 연구는 고고학을 중심으로 하되 언어학·민족학 등 인문학적 연구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남도어족 문화계통의 이해를 위해서는 환경과학, 고식물학, 지리학, 해양과학 등 자연과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신석기시대 해안문화 연구에서 해양 지질학과 해양생물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둘째, 연구의 중심은 지역 단위에 두어야 하며, 지리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당시 황하 유역에서는 활발한 발굴이 이루어졌지만, 화남 및 동남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드물었다. 대만 해협의 문화사 연구는 양안

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다. 셋째, 동남아 연해안 고대문화 연구는 중국 본토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지역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남도어족 언어를 사용하는 약 1억 5천만 명의 집단의 기원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연구자들과의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비록 이후 ‘남도어족의 기원과 확산’에 관한 장광직의 견해가 일부 수정되었으나, 이는 새로운 발굴 자료와 방법론의 발전에 따른 연구 확장으로, 퇴보로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그의 연구는 대만 고고학 인재 양성과 학문적 방법론 정립을 통해 동남아 연해안 고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남도어족의 기원을 대만 해협에 국한하지 않고, 연구 범위를 동남 연해안 및 주변 도서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구 시야를 확장했다.

초기 대만 원주민 기원 연구는 중국과 일본 학자들의 이론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였으나,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대만 고고학의 연구 방향이 변화하면서 이러한 수용 태도도 크게 달라졌다. 1980년대 중기 이전의 대만 고고학이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대만 원주민의 기원과 확산이 새로운 연구 주제로 재구성되었다. (劉益昌·郭素秋, 2000, 105—122; 盧柔君, 2025b 15-16)

대만 고고학에서는 새로운 발굴 자료를 통해 선행연구와 이론이 수정·보완되는 현상이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중국 화남지역 신석기문화의 영향을 보이는 원산문화(圓山文化)의 연대 재설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인된다. 특히 대만 원주민의 기원과 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신석기시대 동남 연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도어족의 해상 이동 경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 Ⅲ. 대만 선사 고고학

#### 1. 대만의 선사 문화

중국,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관련 여부에 관한 연구 조사와 의견은 많다. 지금으로부터 BP 5000년 전에서부터 BP 2300년 전 사이에 대만 섬의 각 지역에는 점차 여러 개의 지역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토착 문화 유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만 선사 문화 유형의 사회적 성격은 시대의 선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구분된다. 연대가 조금 빠른 단계는 대략 BP 5000년에서 BP 3500년 전 사이이다. 대만 신석기시대의 도서(島嶼) 연해안 지역에서는 활발한 해상 교류가 이루어졌다. (元重皓, 2025:180-183)

중국, 러시아 연해주, 한반도 신석기문화와의 관련성에 관해서도 다양한 연구와 견해가 제시됐다. 약 BP 5000년에서 BP 2300년 사이, 대만 각 지역에서는 점차 지역적 특성이 뚜렷한 여러 토착 문화 유형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劉益昌, 2002, 349-362)

대만 선사 문화 유형의 사회적 성격은 시기별로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연대가 이른 단계는 대략 BP 5000년에서 BP 3500년경에 해당한다. 이 시기 대만지역 신석기시대의 매장 의례와 관련된 대형 단석(單石) 및 요철(凹凸) 무늬 석상의 출토 맥락 분석은 유단석분(有段石鏹), 유견석부(有肩石斧), 골기(骨器) 등의 유물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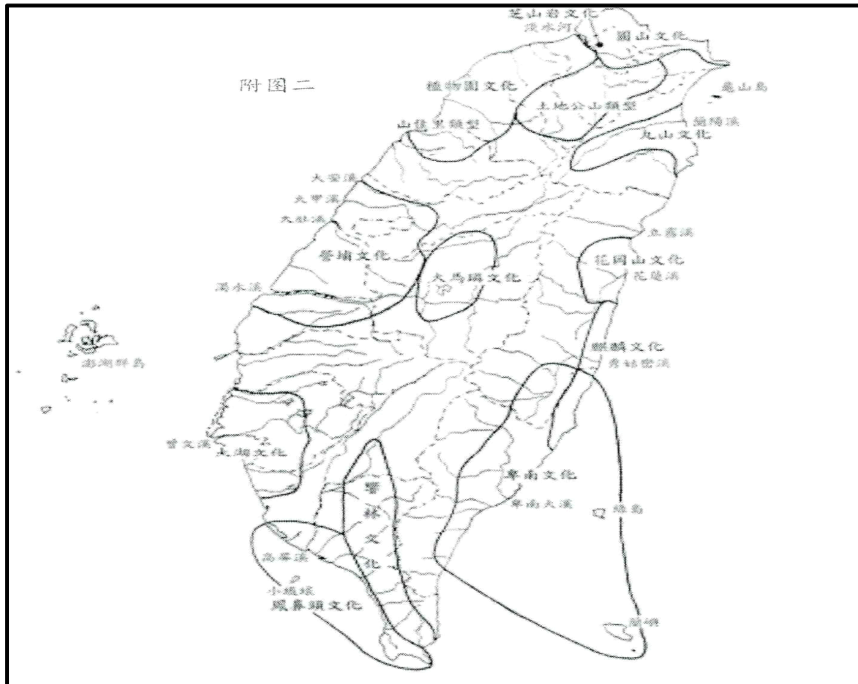
宋文勳(1980)은 대만 동부지역에서 출토된 요철형 석상이 제사 행위 공간의 경계를 구획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면서 크기와 제작기법으로 미루어 그 기능이 매우 다양했을 것으로 보았다.

대만 신석기시대의 대표적 선사 문화 유형으로는 원산문화(圓山文化), 지산암문화(芝山巖文化), 세승문도문화(細繩紋陶文化)가 있다(劉益昌, 1992, 2000a: 71 - 112).

연대가 비교적 늦은 단계는 기원전 3500년에서 기원전 2000년 사이에 해당하며, 주요 문화 유형으로는 식물원문화(植物園文化), 영포문화(營捕文化), 대호문화(大湖文化), 비남문화(卑南文化), 그리고 거석문화(巨石文化)에 속하는 기린문화(麒麟文化)가 대표적이다(王巍, 2014).

<표 1>. 대만 서부 연해안 신석기문화 순서

	연대	대만 서부 연해
신석기시대 전기	BC 6000-4500/4200	粗 층문도문화 (대분갱문화)
신석기시대 중기	BC 4500-3500	細 층문도문화 (신당포문화, 우조자문화, 우매두문화 등)
신석기시대 후기	BC 3500-2200	소면(素面)도문화 (원산문화, 지산암문화, 영포문화, 봉비두문화 등)



<도면2> 대만 신석기시대 말기 유적 분포도<sup>7)</sup>

(1) 원산문화(圓山文化)

대북시(臺北市)에서 발견된 원산(圓山) 패총은 원산문화(圓山文化)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원산문화에서 출토된 토기는 모래가 함유된 태토(胎土)를 사

7) 孔夢悅, (2011), "試論台灣地區的石板棺墓", 中央民族大學 碩士

용하였으며, 홍갈색 채색 토기를 비롯해 회색, 흑색, 연황색 토기 등 다양한 색조의 토기가 확인된다. 대부분의 기형은 소박하고 무문(無文)이지만, 외면에는 붉은색 안료 가 칠해져 있다. 대형 구부 아래는 외부로 돌출된 형태를 보이고, 소형 구부 아래에는 선형의 흐름이 관찰된다. 특히 둥근 다리를 가진 볼록한 항아리형 토기가 다수를 차지하며, 이 외에도 2~3개의 구부(口部)를 가진 다구형(多口形) 토기 형태도 확인된다. 일부 항아리형 토기에는 파수(把手)가 부착되어 있으며, 외부에는 조잡한 장식 문양이 새겨져 있다.

류익창(1996a)에 의하면 원산패총에서 출토된 석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원산문화의 석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마제석기이며, 타제석기와 갈아서 다듬은 석기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석기 형식으로는 유견석부(有肩石斧), 유단석분(有段石鏃), 대형 편평 석부 등이 있다.

특히 유단석분은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또한 삼각형 대공(帶孔) 석촉과 대조(帶槽)형 그물추 등이 발견되어 당시 석기 문화의 형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옥석의 제작과 사용도 다양해졌는데, 끝이나 자귀 형태로 가공되어 팔찌나 귀걸이 등 장신구로 이용되었다. 골각기(骨角器) 또한 다수 출토되었으며, 화살촉, 창끝, 끌, 송곳 등이 주요한 예이다.

원산패총의 묘장(墓葬)에서는 시신을 신전(伸展)한 상태로 매장한 ‘양신직지장(仰身直肢葬)’이 확인된다. 이는 시신을 패총 내에 매장하는 장법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며, 당시 사체 처리 및 장례 습속의 일단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이다.

류익창(2000b)은 원산문화의 연대를 최근 대만 고고학계 연구에 따라 기존보다 수정해서, 기원전 3200년에서 기원전 2300년으로 제시하였다. 원산문화와 중국 신석기시대 문화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만 북부의 초기 신석기시대 유적인 대분갱(大盆坑) 유적에서 확인된 원산 문화층에서는 나무, 뼈, 풀, 진흙 등으로 제작된 벽체와 암석을 기반으로 한 경계 유구가 발견된다. 이러한 유적은 대만 동북부 해안 지역과 북부의 고지대로 둘러싸인 평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도면 3> 인수형옥결(人獸形玉玦) , 유견석부, 유단석분<sup>8)</sup>

## (2) 지산암(芝山巖)문화

대북시 사림구(士林區)의 지산암(芝山巖) 유적에서 발견됐다. 이 유적의 문화층은 두 개다. 상층에서는 원산 문화층이 발견됐고, 그 밑(=하층)에서는 지산암 문화층이 확인됐다. 지산암 문화층에서 발견된 토기 형식은 항아리(罐), 접시(鉢), 공기(碗), 제기(豆) 등으로 다양하다. 무늬 장식들도 매우 다양한데, 채색문 무늬 외에도 압인 문, 둥그런 원 모양 무늬, 승문 무늬, 치아 형태의 홈 형 무늬 그리고 격자무늬, 줄무늬와 빗금무늬 등이다. (劉益昌, 1996b)

발견된 석기는 타제 석부, 돌삽, 돌 호미, 돌괭이, 마제석부, 어망추, 요철형(凹凸形) 석상, 돌 자귀(石鏟), 돌 끌(石鑿), 석도, 화살촉, 돌절구 공이(石杵)와 옥 장식물이다. 그 외에 표면이 매끈하고 정교한 골 각, 뼈와 치아로 만들어진 도구도 발견된다. 이외에도 나무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있는데, 땅을 파는 데 사용된 막대기인 굴봉(掘棒)을 포함해서 뾰족한 형태의 도구, 팽이 모양의 도구, 목재로 된 펄프 형태의 도구 등이 있다. 편직물과 탄화된 벼 이삭도 대량의 동물 골격들과 같이 발견됐다.

8) 國立臺灣史前文化博物館, 考古學習網 <https://archae.nmp.gov.tw/>



<도면 4> 지산암(芝山巖)문화 토기<sup>9)</sup>

채도와 흑피도(黑皮陶)는 지산암문화 토기의 장식적 특징을 대표하는 주요 요소로 파악된다. 채화는 주로 니질 홍도 항아리의 표면에 흑색 안료를 이용하여 그려졌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토발(陶鉢)에도 시문된 예가 확인된다. 문양은 평행선이 교차하거나 교합된 형태의 무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도 압인(壓印)·각화(刻畫) 등 다양한 장식기법이 사용되어, 점열문(捺點紋)·권문(圈紋)·승문(繩紋)·획문(劃紋) 등의 무늬가 시문된 것이 확인된다(葉美珍, 2015).

지산암(芝山巖) 문화에서 출토된 토기 유형은 주로 구 부가 넓고 배가 볼록한 항아리와 질그릇 토발(陶鉢)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토완(陶碗)·토반(陶盤)·토두(陶豆)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안쪽에 손잡이가 부착된 특이한 기형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기능적으로 덮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토제 방추(陶製紡錘), 토환(陶環) 및 각종 장식품 등도 함께 출토되어 당시 생활 용기 및 부속품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제작기법은 대부분 수제로 성형되었으며, 일부 토기에서는 구연부가 비교적 정원형을 이루는 회전가공 흔적이 관찰된다. 이러한 특징은 지산암문화 토기의 제작 기술이 점진적으로 정교화되어 가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9) 芝山岩文化的陶器 [http://ci6.lib.ntu.edu.tw/tamsui/subject/subject-2/pre\\_chihshanyen\\_pottery.html](http://ci6.lib.ntu.edu.tw/tamsui/subject/subject-2/pre_chihshanyen_pottery.html)

### (3) 세승문도(細繩紋陶)

승문홍도문화(繩文紅陶文化)라고도 불렀다. 대만학자들은 각 지역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관련 유적에 맞추어 봉비두문화(鳳鼻頭文化), 우조자문화(牛稠子文化), 우매두문화(牛罵頭文化), 혹은 초혜돈문화(草鞋墩文化)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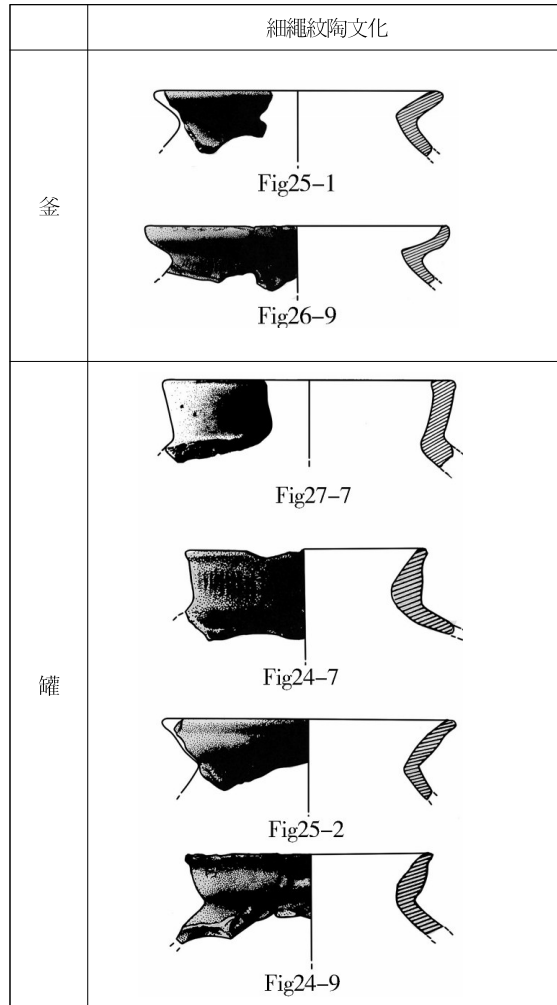
이 문화는 대만의 산간보다는 해안지역에 넓게 퍼져 있다. 대만 섬 내륙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90곳이 넘는 유적이 발견된 대만 선사 문화유적 중에서는 지역적 분포가 넓은 것 중의 하나이다.<sup>10)</sup>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대만 중부지역 청수진(清水鎮) 우매두(牛罵頭), 남투현(南投縣) 초둔진(草屯鎮) 초혜돈(草鞋墩), 대만 남부 지역의 인덕향(仁德鄉) 우조자문화(牛稠子文化), 고퉁현(高雄縣) 임원향(林園鄉) 봉비두(鳳鼻頭) 제 2 문화층, 병동현(屏東縣) 긍춘(恆春)진 간정(墾丁) 그리고 아란비(鵝鑾鼻), 화련현(花蓮縣) 수풍향(壽豐鄉) 고요(監寮), 대만 동부 동하향(東河鄉) 어교(漁橋) 그리고 팽호현(澎湖縣) 마공시(馬公市) 쇠항(鎖港) 등이 있다.

승문홍도문화가 초기 선사 문화는 아니지만, 대만 선사 문화의 중요한 바탕이다.

이 문화에서 발견된 유물에서 보이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기는 협사 재질의 정교한 홍도가 주로 발견된다. 수제 작업으로 제작했고, 흙으로 친친히 테[輪]를 해서 쌓아 올라가며 형태를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 이 문화에서는 항아리 모양의 토기와 접시 모양의 토기가 주로 발견된다. 둘째, 주로 정교한 승문이 시문된 문양이 발견된다. 대부분 기체 중간 부분을 채색했거나, 무늬를 새겼다. 바둑판 형태의 격문 무늬, 압인 무늬 그리고 채색 무늬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석기로는 타제와 마제 돌괘이, 직사각형과 반월형 그리고 화형(靴形) 석도, 장방형 돌 자귀, 석촉, 어망추가 있다. 요철형 석상과 옥 재질의 장식품 등도 확인됐다.

10) 臧振華, (1990), “略論台灣的細繩紋陶文化”, 『浙江學刊』 6期, 46-47.



<도면 5> 세승문도(細繩紋陶)<sup>11)</sup>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승문홍도문화 유적에서 모두 대량의 패각 류 와 동물 골격 흔적이 발견됐지만, 간정(墾丁)과 팽호현(澎湖縣) 백사향(白沙鄉)의 적감(赤崁) B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편을 감정한 결과 인디카종 버에 속하는 볏씨 껍질이 찍힌 흔적이 발견됐다. 이것은 동물의 사료일 수도 있지만,

11) 細繩紋陶文化陶器資料 Tsang Cheng-hwa. (1992), "Archaeology of the Penghu Islands".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PP118-120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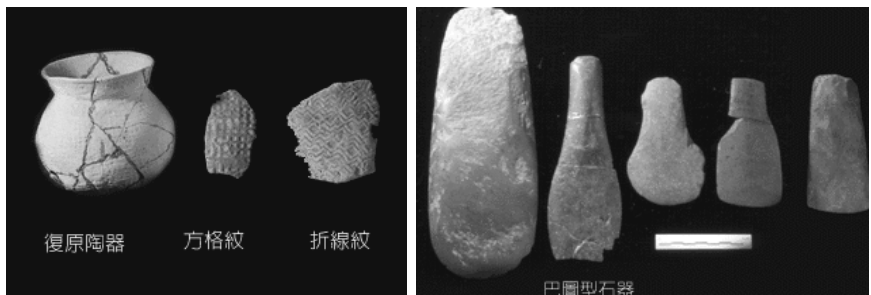
당시 농경 재배 흔적일 수도 있다. 간정(墾丁)과 팽호현(澎湖縣), 팽호(澎湖)의 쇠항(鎖港) 등의 유적에서는 모두 묘장(墓葬)이 발견됐고, 매장 도구로는 석관이 사용됐다. (臧振華, 1990, 1996)

(4) 식물원(植物園)문화

이 문화는 대만 북부의 높은 대지로 둘러싸인 평탄한 지형과 그 주변 담수(淡水) 중·하류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식물원(植物園) 유적이 대표적이다. 대만의 연구자들은 유적이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이 문화의 전반적인 양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출토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특징적 문화 성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식물원문화에서는 항아리 형태의 토기가 주로 출토되었는데, 정교한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기벽이 두껍다. 채색은 갈색 또는 옅은 갈색 계열이 대부분이다. 주요 문양 장식으로는 방형(方形)의 격자문(格子紋)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식물원문화 토기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소성되었기 때문에, 질감이 부드럽고 쉽게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의 주요 기형은 손잡이가 없는 항아리와 사발이며, 그중에서도 표면에 격자무늬가 새겨진 연갈색 토기가 가장 특징적이다. 이 밖에도 지그재그 무늬, 바구니 무늬, 돛자리 무늬 등 다양한 장식 문양이 존재한다.



a b  
 <도면 6> 식물원 문화 토기 a, 식물원 문화 석기 b 12)

12) 台大人類學系 <https://anthro.ntu.edu.tw/>

이곳에서 발견된 타제석기와 마제석기의 수량은 서로 비슷하다.<sup>13)</sup> 유단 석분이 대량으로 발견됐고 유견석부의 발견 양은 적다. 대표적인 석기의 기형으로는 석부와 돌 끌, 돌 자귀 등이 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발견된 석기 형식과 종류가 원산문화 석기들과 대체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 (5) 영포(營捕)문화

이 문화는 대만 중부 대중현(台中縣)의 강인 대두계(大肚溪)와 혼탁한 하천수가 흐르는 중·하류 일대의 강변 아래 구릉 지대에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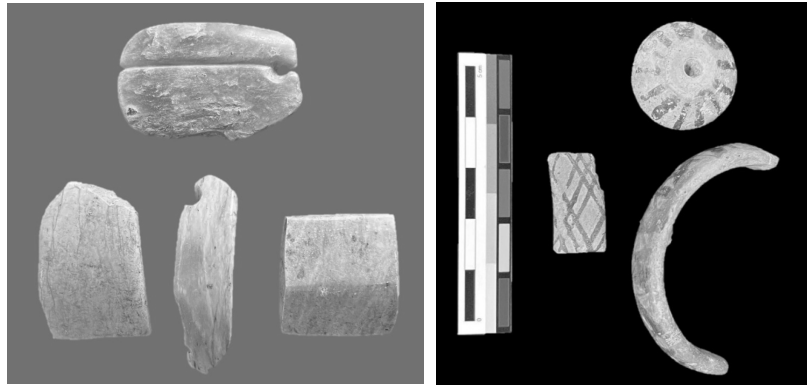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대중현 대두향(大肚鄉) 영포(永和裏), 남투현(南投縣) 집집진(集集鎮) 동각(洞角), 포리진(埔裏鎮) 대마린(大馬麟) 등이 있다. 유적의 분포 범위가 넓어 각 유적 간에는 지역적 문화 변이가 확인되지만,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 또한 명확하다.

영포문화 유적에서는 잿빛을 띤 흑갈색의 항아리나 사발형 토기가 주로 출토되었다. 이들 토기는 덮개가 있는 항아리형, 바닥에 둥근 다리가 달린 형태, 그리고 세 개의 다리만을 지닌 삼족기(三足器) 형식 등으로 다양하다. 문양 또한 여러 유형이 존재하는데, 깃털 무늬, 파도 무늬, 원형무늬, 조개 무늬, 점문(點紋), 활무늬, 채색문(彩色紋) 등이 대표적이다.<sup>14)</sup>

석기류의 종류 역시 다양하고 복잡하다. 대표적인 석기에는 돌 호미, 돌 자귀, 석도(石刀), 돌화살촉, 석창, 석구(石球), 어망추 등이 있다. 영포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중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은 비교적 적은 편이나, 벌써 껍질의 흔적이 찍힌 토기와 소형 옥기가 발견되어 농경 활동 및 장식 문화의 존재를 시사한다.

13) 傅憲國, (1988), “論有段石鏃和有肩石器” 『考古學報』 1期,

14) 陳仲玉, (2007), “臺灣中部與南部的史前文化區系研究”, 『考古人類學刊』, 58期,



영포유적 출토 소형 옥기

채도 무늬 장식 陶環

<도면 7> 大肚 營埔遺址 구제발굴 자료15)

#### (6) 대호(大湖)문화

이 문화는 대만의 타이난(臺南)과 가오슝(高雄) 일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고웅현(高雄縣) 호내향(湖內鄉)의 대호(大湖) 유적이 대표적이다. 이 문화에서는 회색과 홍색의 두 가지 색조를 띠며, 모래가 혼입된 토기가 주로 출토됐다. (Chang, Kwang-chih, 1986)

출토된 토기의 형식은 다양하다. 윗부분이 벌어지고 아랫부분이 좁은 원형 대야형(大冶形) 토기를 비롯하여 잔형(盞形), 접시형(皿形), 항아리형(壺形) 등이 있다. 또한, 둥근 바닥 다리를 지닌 권족기(圈足器)와 바닥 아래에 세 개의 다리가 달린 삼족토기(三足土器) 형식도 발견된다.

토기에 시문(施文)된 문양 장식은 새겨 넣은 승문(繩文), 갈대 무늬, 버드나무무늬, 격자무늬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상당한 양의 채색 토기와 흑색토기가 확인되었다. 흑도(黑陶) 가운데에는 기벽이 얇고 광택이 나는 것이 있으며, 외벽에는 굽은 파도 무늬 형태의 세밀한 장식이 새겨져 있다.

이 문화에서 출토된 석기류로는 돌 호미, 돌화살촉, 석도, 돌 자귀(石鐮) 등이 있다. 그중 점판암(板岩)으로 제작된 석기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sup>16)</sup>

또한, 패총에서는 골각기(骨角器)와 조개로 만든 장식품이 다량으로 출토

15) <https://epub.nmns.edu.tw/j202302-1/>

16) 李玉文, (2011), “鳳鼻頭文化與大湖文化的關聯性初探”, 『南島考古研究』 4期

되어, 이러한 현상은 대호문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평가된다.



<도면 8> 대호(大湖)문화 넓은 입의 장경평저병(長頸平底瓶) 흑색토기<sup>17)</sup>

#### (7) 비남(卑南)문화

비남문화(卑南文化)는 타이둥(臺東) 평원과 화동종곡(花東縱穀), 그리고 타이둥 해안산맥 남부에서 궁춘반도(恆春半島)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타이둥시(臺東市) 남왕리(南王裏)의 비남(卑南) 유적이 가장 대표적이다. 1980년, 동부 철도 노선 변경 및 비남 신역(新驛) 설치를 위한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석관묘와 고분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타이완대학교 고고학 발굴단은 열 차례가 넘는 구제발굴(rescue excavation)을 하여 대량의 문화 유물과 건축 유구를 수습하였다. (陳仲玉, 2009a)

출토된 유물은 석관 내 부장품을 비롯해 각 문화층에서 발견된 일상 용품들로 구성된다. 부장품의 형태는 대부분 완전하게 남아있으며, 토제 항아리·주전자·컵·방추차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돌과 옥을 재료로 한 머리 장식, 귀걸이, 목걸이, 가슴걸이 등 장신구도 다수 확인되었다.

원자재가 같은 옥석 재료로 제작된 화살촉, 창 축, 자귀, 끌 등도 있으나, 부장품과 달리 다수가 훼손된 상태였다.<sup>18)</sup>

이 밖에도 석도, 석창, 돌낫, 돌화살촉, 돌 바늘, 석부, 돌로 만든 어망추,

17) 南科考古館: <https://stsp.nmp.gov.tw>

18) 吳密察, (1982), “臺灣東部卑南文化的發展與特徵”,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5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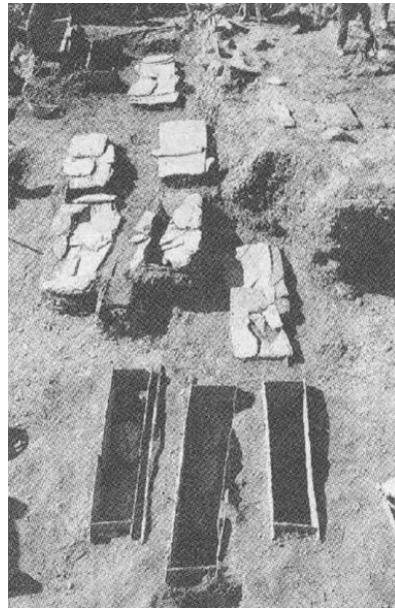
오목하게 들어간 요석(凹石), 돌 봉둥이인 석봉(石棒) 등이 출토되었다. 건축 유구로는 입석(立石) 구조물과 함께 지면에 포석(鋪石)을 깔거나, 돌담과 환상(環狀) 석 열로 된 시설이 확인되었다.

비남(卑南) 유적의 면적은 30만㎡를 넘으며, 조성 시기는 기원전 3000년 경으로 추정된다. 이는 1990년대 초 기준으로, 대만에서 발견된 선사 시대 촌락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유적이다. 당시 주민들은 곡물 농업과 함께 수렵·채집을 병행하였으며, 거주지는 장방형(長方形) 구조로 석축(石築)을 이용해 조성되었다. 외부에는 저장용 구조물도 확인된다(陳仲玉, 2009b).

출토 유물(부장품, 토기, 옥기)과 건축 유구의 성격으로 볼 때, 비남문화의 촌락 내부에는 토기와 옥기 제작을 담당한 수공업 공방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9> 卑南 유적 82365호  
묘관 내부 길이 3cm, 폭 19cm



<도면 10> 卑南 유적의 건축 유구  
및 매장 유적 조사 현황.

<도면 9>는 조산아의 매장 습속인 매장례(埋葬禮) 유구이고, <도면 10> 왼쪽은 '석축벽(砌石牆)' 그 동쪽은 일렬로 배치된 '석축환(砌石圈)'을 보여준

다. 왼쪽은 ‘석축벽(砌石牆)’과 그 동쪽은 일렬로 배치된 ‘석축환(砌石圈)’을 보여준다. 그보다 더 왼쪽에는 ‘작은 주거 공간’이 확인된다. 오른쪽 그림은 층위가 비교적 높은 매장(북-남쪽으로 바라본 모습)이다. (連照美, 2000. 630-635)

발견된 묘장군(墓葬群) 내 묘주와 부장품 출토 맥락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확인되었다. 첫째, 남녀가 성인에 이르면 일부러 이를 뽑는 발치(拔齒) 풍습이 존재하였다. 둘째,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실내(室內)에 매장하는 거실장(居室葬) 습속이 확인된다. 셋째, 이러한 두 가지 대표적 매장 관습(발치와 거실 장)의 존재로 미루어볼 때, 당시 사회 내부에는 이미 일정 수준의 빈부 격차와 위계적 분화 등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8) 기린(麒麟)문화

이 문화는 ‘거석문화(巨石文化)’라고도 불린다. 대만 학자들은 대체로 기린문화(麒麟文化)가 대만 동해안의 비남문화(卑南文化)와 병존하였던 또 다른 문화의 갈래로 이해하고 있다.

대만 해안산맥 동쪽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북쪽으로는 화롄현(花蓮縣) 수림향(秀林鄉)의 태로각(太魯閣)에서, 남쪽으로는 타이둥현(臺東縣) 성공진(成功鎮)의 도란(都蘭)에 이르기까지 확인된다. 이 지역 일대에서는 현재까지 10여 곳의 관련 유적이 발굴되었으며, 그중에서도 기린(麒麟) 유적이 가장 대표적이다.

기린문화 유적에서는 홍갈색 모래가 혼입된 토기가 주로 출토되었다. 대부분 토기는 무늬나 장식이 없는 단색 토기로, 형식상 간결하고 실용적인 성격을 보인다. 석기류로는 타제·마제 돌팽이, 돌 자귀, 돌 끌, 석창, 석도, 어망추 등이 있다.<sup>19)</sup>

대만 기린문화의 중요한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암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대형 석조물이 다수 확인된다. 둘째, 암석으로 만든 석관이 존재한다. 셋

19) 王仁湘, (1987), “關於我國新石器時代雙肩石器研究”, 『南方民族考古』 1期, 王吉懷, (1995), “凸形石器考”, 『農業工具』 3期, 108-115.

제, 석벽(石壁)·단석(單石)·석상(石像)·석륜(石輪) 등 다양한 거석 구조물이 발견된다. 넷째, 석주(石柱) 및 중앙에 구멍이 뚫린 석반(石盤) 등 의례용 석기 또한 확인된다.

宋文薰(1980)은 당시 거주민의 일상생활과 이러한 거석 구조물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고, 거석이 주로 제사나 의례적 행위와 관련된 상징적 구조물이라고 해석하였다.



<도면 11> 기린문화 유견단석 20)

대만 선사 원주민의 기원 연구는 중국 동남 연해안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상 교두보로서 대만 도서 지역의 고고학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핵심 주제다. 대만에서 출토된 유단석분은 중국 화남(華南) 지역 석기 문화의 영향으로만 해석되었으나, 실제로는 대만 원주민의 해상 이동 수단(독목선, 獨木舟) 제작을 위한 목공구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민족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대만 원주민은 독목선 제작 과정에서 유단석분을 사용하고 있다. 대만 고고학 유적에서 확인된 유단석분의 출토 맥락과 거주 환경의 상관관계는 매우 뚜렷하다. 그러나 출토 유물과 공반 유물의 기능적 분석이 충분하지 않아, 석부(石斧)·석분(石鏟)의 외형적 차이(견부·단부 등)만이 강조되면서, 중국 동남 연해안-대만 해역을 통한 해상 이동 및 남도어족(Austronesian)과의 교류 흔적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대만 원주민이 사용하는 독목선 제작에도

20) 國立臺灣歷史博物館典藏網. <https://collections.nmth.gov.tw/index.aspx>

유단석분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선사 시대 대만 원주민이 돌목선을 이용해 대만 해협과 도서 연해안 지역을 이동했다는 사실은, 중국 신석기-청동기 시대 연해안 거주민의 해상 기술과 도구 사용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당시 사용된 마제석기와 지역 환경의 관계는 생각보다 긴밀하며, 이는 석기 문화의 지역적 다양성을 반영한다.

동아시아 연해안 지역의 자귀류 석기는 크기가 다양하며, 동체 부에 단(段)이나 홈이 새겨진 형태를 보인다.

왕지회(王吉懷, 1995)와 왕인상(王仁湘, 1987)은 이러한 석기가 농경용 굴 지구(掘地具)로 사용된 유견석부(有肩石斧)와는 기능적으로 구분된다고 지적하였다. 즉, 자귀류 석기는 이동성과 사용 편의성을 위해 형태가 변형된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원재료가 다양하다. 둘째, 동체 부의 홈이나 단의 크기·깊이·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셋째, 동체 부의 무늬나 홈의 형태는 방향·길이·위치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자귀류 석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무늬 형태’는 단순한 기능적 차이보다 문화적·지역적 변형의 상징적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sup>21)</sup> 한반도 유구석부 기원은 현재 국내 학계에서 자체 발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배진성, 2000, 2001) 그러나 중국 동남 연해안 지역에서의 해상 교류를 통해 석기 제작 기술과 사용 기능이 랴오둥반도 남단과 한반도 북부로 전파되었다면, 청동기시대에 자체적으로 발전한 마제석기가 점진적으로 청동기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동남 연해안 지역의 자귀류 석기 문화적 요소가 한반도 석기 문화의 형성 및 변천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대만 선사 문화는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원산문화(圓山文化)는 홍갈색 토기, 유단석분과 같은 석기, 옥기, 골각기 등 다양한 유물을 통해 당시 사회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지산암문화(芝山巖文化)와 세승문도문화(細繩紋陶文化)는 해안지역에 넓게 분포하며 농경의 흔적과 매장 풍습을 동반한다. 영포문화(營埔文化)와 대호문화(大湖文化)는 채색 토기,

21) 필자가 한반도 유구석부를 자귀류 석기에 포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재료가 옥석(玉石)이 아니라 일반적인 암석이다. 둘째, 유구석부는 전체 크기와 길이, 그리고 동체 부의 홈 깊이·위치·형태 등에서 변이가 크다. 셋째, 사용 기능은 목공구이지만, 육상·해상·수렵 등 다목적 도구로 활용되어 전형적인 농경용 굴 지구인 유견석부와는 성격이 다르다. 원중호 (2001) “한반도 유구석부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석기, 옥기 등 복합적 유물군을 통해 농경과 수공업의 발달을 입증한다. 베이난문화(卑南文化)는 대규모 촌락과 부장품, 묘제(墓制)를 통해 사회적 위계와 분화를 보여주며, 기린문화(麒麟文化)는 대형 석조물과 거석 문화적 요소를 통해 의례적 성격을 드러낸다. 이러한 문화적 전개는 대만이 단순히 본토의 변방이 아니라 독자적이면서도 해상 교류의 중심이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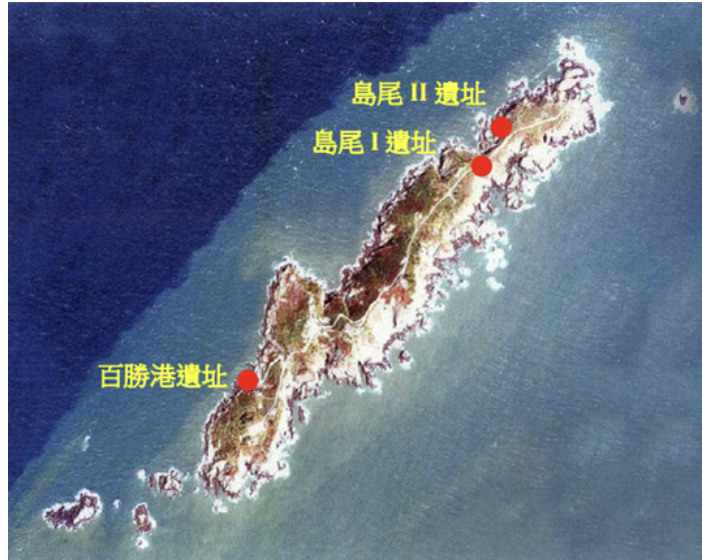
## 2. 대만 원주민의 기원

‘대만 원주민의 기원’은 대만 고고학 연구의 핵심 연구 주제다. 대만 고고학은 영역을 넘나드는 시야 속에서 꾸준히 발전해왔다. 대만 고고학의 발전사는 단순한 역사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시대별 사상과 사회 변화의 반영이기도 하다. 관련 연구는 이론과 방법의 갱신, 문화유산 보호의 심화, 공공 참여의 확대를 통해 대만 고고학이 다원적이며 국제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구석기시대 인류 이동에서부터 남도어족(南島語族)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국제 고고학계에 중요한 공헌을 해왔다. (盧柔君, 2025b, 227)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인류학·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된 고고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대만 고고학계는 ‘대만 원주민의 기원’과 ‘대만인의 역사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새로운 연구 과제를 설정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대만 고고학의 연구 방향을 단순한 유물 중심 분석에서 문화·언어·민족 기원론의 통합적 탐구로 확장했다.

최근에는 대만 원주민의 기원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고고학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및 도서(島嶼) 연해안 고고학에 대한 대만 학계의 관심이 커지면서, 젊은 고고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굴 및 연구 결과가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洪曉春, 2018.2024)



<도면12> 마조구량도도미 I II 유적(馬祖區亮島島尾 I II 遺址)<sup>22)</sup>

2011년 말에는 중요한 발굴 성과가 있었다. 마조구량도도미유적(馬祖區亮島島尾遺址)에서 BP 8000년 된 거의 완벽한 인골인 ‘량도인(亮島人)’ 1호(남성)와 2호(여성)가 발견된 것이다. 해당 유적의 무덤에서 출토된 인골은 현재 동남아시아 해안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초기 및 중기의 가장 완전한 고대 인골 유전 서열로 평가된다. 2012년 탄소연대측정(C14) 결과, 량도도미 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8300년에서 7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대만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신석기시대 유적 중 하나이다.<sup>23)</sup>

대만 원주민 기원 연구는 남도어족 기원과 확산 연구에 직결된다. 『馬祖亮島(亮島) 遺址群 發掘及『亮島人』修復計畫』에서 수행한 고대 유골의 유전학(DNA) 분석 결과, ‘亮島人(Liangdao 인)’은 대만의 고산족 원주민과 유전적으로 친족 관계에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초기

22) 陳仲玉, 邱鴻霖, 遊桂香, (2013), “馬祖亮島島尾遺址群發掘及『亮島人』修復計畫”, 連江縣政府文化局

23) 亮島島尾考古遺址와 관련한 대만 고고학 참고문헌은 陳仲玉, 邱鴻霖, 遊桂香, (2013), 『馬祖亮島島尾遺址群發掘及『亮島人』修復計畫』, 連江縣政府文化局을 중심으로 검토했고, 중국과 외국 고고학자의 관점은 발표 논문을 참고했다.

남도어족의 이동은 약 6,000년 전에 중국 허난 동남 해안에서 시작되어 대만으로 이주한 뒤, 이후 남쪽으로 확장하여 약 4,000년 전부터 동남아시아, 마다가스카르, 오세아니아 등지로 서서히 퍼져 나갔다는 가설이 지지가 된다. (陳仲玉·黃運明, 2018a; 付琳·官民夥, 2019)

마조구량도도미(馬祖區亮島島尾) 유적 무덤에서는 BP 8000년 된 거의 완벽한 인골인 ‘량도인(亮島人)’ 1 와 2호 (男, 女)가 발견된다. 전자는 남성, 후자는 여성이다. 량도 유적에서 확인된 1호 및 2호 량도인 인골은 모두 일차장(一次葬)의 형태로 매장되었다. 두 개 모두 별도의 관(棺)이나 석곽(石槨) 등 장구(葬具)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토광(土坑)을 파고 시신을 직접 매장한 토갱장(土坑葬)으로 파악된다. 1호 인골은 폐총 하층부, 2호 인골은 폐총 중층부에서 각각 발견되어 층위상 차이를 보인다. (陳仲玉·邱鴻霖, 2013a)

1호 량도인은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신체를 좌측으로 약간 기울이고 사지를 굽힌 양신좌측굴지(仰身左側屈四肢) 자세로 매장되었다. 반면, 2호는 등을 대고 사지를 곧게 편 양신직지(仰身直肢)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 방법의 차이는 시기적 변동이나 개체 간 사회적 지위, 혹은 의례적 관념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인골 모두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매장하였으며, 이는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에 대한 상징적 인식, 즉 태양 숭배나 재생(再生)의 신앙과 관련된 의례적 배치로 이해된다. 또한 1호는 얼굴이 남쪽을 향하고, 2호는 북쪽을 향하는 등 바라보는 방향에서도 상이한 특징이 관찰된다. (陳仲玉·邱鴻霖, 2013b)

부장품의 존재 양상 또한 차이를 보인다. 1호에서는 부장품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지만, 2호의 오른발 아래에서는 원형 자갈로 제작된 석 추 1점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은 생전 사용하던 도구일 가능성 외에도, 사후 의례나 상징적 목적에 연관된 물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묘혈 주변에서는 매장과 관련된 추가적 흔적이 발견되었다. 1호 묘혈의 상방 약 20cm 지점에는 무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형 자갈이 배치되어 있었고, 2호 묘혈의 하방 10~20cm 부근에서는 불을 피운 흔적, 즉 화당(火塘) 현상이 관찰되었다. (陳仲玉·黃運明 2018b) 이렇게 불을 사용한 흔적은 매장 전후에 화제(火祭) 혹은 정화(淨化) 의례가 수행되었음을 드러낸다.

종합적으로 볼 때, 亮島人의 매장 습속은 단순한 토갱장 형식 속에서도 일정한 의례적 규범과 상징체계가 내재하여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동쪽을 향하는 매장 방법과 방바닥을 파서 돌레를 벽돌로 쌓고 구덩이 안에다가 불을 피워 따뜻하게 하는 화당 현상, 석추 부장 등은 태양과 불을 매개로 한 재생·정화의 신앙이 당시 공동체의 장례 의식에 반영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량도도미 유적의 연대는 2012년 탄소연대측정(C14) 결과, B.C. 8300에서 B.C. 7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대만에서 발견된 지 가장 오래된 신석기시대 유적 중의 하나다.

발견된 무덤 내 두 개 인골의 보존 상태는 모두 양호하여 DNA를 측정·분석할 수 있었다. 이것은 현재 동남아 해안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초기와 중기의 가장 완전한 고대 인간 DNA 서열로, 동남아 지역의 신석기시대 초기와 중기 인구의 분포와 이동 과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학적 증거를 제공한다. 형질인류학(인골·골격 분석) 연구 결과 량도인 1호와 2호는 남방계 통이지만 서로 다른 인종으로 밝혀졌다. ( Peter Bellwood, 2017a. 235)

전자는 오스트레일리아 인종이고, 후자는 황인종(몽골리안)이다. 아시아계 인종 집단을 가리켜 흔히들 몽골리안이라 부른다. 亮島人 유골은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국 복건 연해안 지역에서 발견된 초기 신석기시대 유적 중에서 출토된 연대가 가장 오래되었고 매장 습속이 잘 보존된 인간 유골이다.

일부 서양 학자는 ‘亮島人 1호’에서 보이는 매장 형식인 굴 지장 자세가 중국 광서(廣西) 지역과 광둥(廣東) 지역에서 대부분 발견된 초기 굴 지장 인골과 일치한다고 보면서, 대만 고산족이 백년 전까지도 굴 지장 관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지역 거주인 사이에 비슷한 문화 전통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Peter Bellwood, 2017b. 302)

최근 대만 고고학의 연구 입장은 활발한 고고학, 인류학적 연구방법론의 도입을 통해 연구 방향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바탕으로 오늘날 시대에서 지속 가능 사회를 구축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접근법 개발은 동아시아 고고학의 가장 큰 과제다. 결국 단선 진화적인 관점이 아니라 생태환경과 인간과의 관계와 그 과정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인류의 보편적인 진화 과정이라는 틀 속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동아시아 신석기 고고학 발전에 화두가 될 것이다.

대만 원주민의 기원은 언어학·고고학·유전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남도어족의 발원지를 대만으로 보는 ‘Out of Taiwan’ 가설은, 유단석분과 같은 목공구 석기의 해상 이동 도구적 성격과 맞물려 설득력을 얻었다. 량도인(亮島人) DNA 분석 결과는 대만 고산족과의 친연성을 보여주며, 약 6천 년 전 중국 동남 해안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집단이 4천 년 전 이후 동남아와 태평양으로 확산했음을 시사한다. 원주민 확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인구 압력설’과 ‘해양 환경 적응설’이 제기되었으며, 최근에는 두 학설을 보완하는 융합적 접근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학계에서 주목받은 남도어족의 대만 도서(島嶼) 연해안 기원에 관한 학설은 크게 두 가지로 각각 인구 동태(人口動態)와 환경 적응(環境適應)이라는 방법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대만 원주민 기원과 남도어족 확산 연구의 주요 이론적 틀로 이어지고 있다. (Mike T. Carson & Hsiao-chun Hung, 2014, 502-515)

대만 원주민의 기원과 확산에 관한 본 연구는,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대만 학계의 고고학 연구 및 소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참고 자료는 최근 대만에서 정식으로 발표된 연구 결과와 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출판된 서적 및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였다. 새롭게 공개된 논문 및 발표 자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국내외 학회와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대만 고고학의 연구 경향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둘째, 도면과 사진을 통해 소개된 출토 인골 및 유물 자료 중 비교적 최신 발굴 성과는, 2003년에 출판된 『馬祖亮島島尾遺址群發掘及『亮島人』修復計畫』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초기 연구 발표 자료는 국립타이완대학교 인류학과 소장 문헌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대만 고고학은 오랫동안 발굴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는 최근 대만 도서 연해안 지역으로 확장된 발굴과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되었다. 특히 2008년 臧振華 에 의해 발표된 팽호(澎湖) 칠미도(七美島) 석기 제조 유적은, 선사 시대 현무암을 이용한

석기 제작 및 교역 활동을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 지역에서 확인된 세 곳의 석기 제작 유적은 규모가 매우 크다. 당시 칠미도와 대만 본섬,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는 석재 원자재 및 가공된 석기의 해상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본다. 가공되지 않은 석재를 주거지역으로 가져와 교역목적을 위해 재가공한 것이지만, 당시 사회 구조상 가공된 석기는 농경 사회의 잉여생산물과 구분되는 것이다.

대만 원주민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대만 섬에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선행돼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일제 점령기 초기 일본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만은 중국과 인접한 전형적인 중국 문화권 내의 섬으로 인식되었다. 빙하기였던 갱신세(更新世), 즉 약 30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 사이에는 대만이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수렵과 채집 생활하던 고인류 집단이 남하하는 동물 무리를 따라 대만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가설은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 고고학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하였다. 국립타이완대학교의 송문훈(宋文勳)과 대만 국립박물관 연구진은 대만 남부 좌진향(左鎮鄉) 일대의 채료계(菜寮溪) 지역을 발굴하던 중, 코뿔소 화석을 포함한 다수의 동물 화석을 발견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화석 수집가 곽덕령(郭德鈴)이 소장하고 있던 채료계 화석 중 인간의 오른쪽 두정골편(頭頂骨片)에 해당하는 불완전한 인류 화석이 확인되었다. (宋文勳, 1973. 陽吉昌, 1995, 56-61)

이어 1973년 일본의 고생물학자 시카마 도키오(鹿間時夫)는 대만 남부의 화석 수집가 반상무(潘常武)가 소장한 동일 지역 출토품 중 또 하나의 인류 두정골편 화석을 확인하였다. 시카마는 두 개의 인류 화석을 일본으로 가져가 정밀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두 화석 모두 현생 인류(*Homo sapiens sapiens*)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연대 분석은 불소(Fluorine)와 망간(Manganese) 함유량 측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약 2만~3만 년 전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2~3만 년 전에는 이미 인류가 대만 섬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따라서 좌진향 채료계 지역 인류 화석은 대만 인류 거주 사의 기원

을 밝히는 결정적인 근거로 대만 고고학사(考古學史)의 출발점을 상징하는 발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63년부터 송문훈(宋文勳)과 임조계(林朝榮) 등 두 명의 연구자는 국립 타이완대학교 고고학 조사팀을 이끌고, 대만 동부 장빈향(長濱鄉)에 있는 팔선동(八仙洞) 동굴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하였다.<sup>24)</sup> 팔선동은 해안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석회암 동굴로, 대만 선사 시대 인류의 초기 거주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발굴 결과, 여러 동굴의 바닥층에서 해안가의 자갈로 제작된 다수의 석기와 그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석기 파편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골각기로는 바늘, 끌, 낚싯바늘, 양날형 골도(骨刀), 그리고 길고 가는 형태의 침기(尖器, pointed implement)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군을 대표하는 문화는 이후 장빈문화(長濱文化)로 명명되었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C<sup>14</sup> dating)과 고고학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빈문화의 형성 시기는 약 BP 50,000년 전(기원전 약 48,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장기간 지속되다가 약 BP 5,000년경에 소멸한 것으로 추정된다.<sup>25)</sup>

당시 이 지역은 현재까지 대만 섬에서 확인된 가장 오래된 인류의 문화유적으로 평가된다.

이후 아란비(鵝鑾鼻)II, 용갱(龍坑), 그리고 타이둥현(臺東縣) 성공진(成功鎮)의 소마등(小馬等) 유적에서도 장빈문화(長濱文化)에서 확인된 것과 유사한 유형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장빈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생활 흔적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초기 대만 거주 인구는 많지 않았으며, 주로 바람을 피하거나 은신할 수 있는 해안 동굴, 혹은 그늘이 진 해안 저지대에 거주하였다. 둘째, 당시 사회는 이동 생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어로·수렵·채집이 생계의 중

24) 대다수 대만의 고고학자는 八仙洞 유적에서 발견된 「長濱文化」가 「左鎮人」 문화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姚同發, (2007), 「左鎮人: 大陸開發台灣 第一人 - 台灣歷史文化淵源之一」, 『黃埔』 1기, 黃埔軍校同學會, , 47-50.

25) 劉益昌, 「台灣考古學近年研究概要 An Overview of Recent Archaeological Research in Taiwan」,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研究員, 國立暨南國際大學人類學研究所合聘教授 제공 자료』, 2012, 1-20

십이었다. 그러나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는 기술은 아직 습득되지 않았다. 셋째, 토기 제작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구조는 복합사회 이전 단계(pre-complex society)에 해당한다. 당시 사람들은 주로 타격(打擊)과 마제(磨製) 기술을 이용하여 자갈의 한쪽 면을 날카롭게 만든 벌채 도구와 자갈 조각 공구를 제작하였다. 일부 대만 고고학자들은 장빈문화의 석기가 중국 화남지역의 구석기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집단이 화남지역에서 이주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연대 분석과 문화층 비교를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약 BP 6000~5000년경 이후, 대만에서는 장빈문화와는 다른 사회적 성격의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였다. 즉, 대분갱문화(大盆坑文化) 또는 승문도문화(繩文陶文化)로 불리는 신석기 초기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이 시기의 유적은 대만 북부 해안, 북부 분지, 서남부 해안, 동부 해안, 그리고 팽호(澎湖) 제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확인되었다.<sup>26)</sup>

신석기문화 복합사회(complex society) 인류는 해변의 대지, 산비탈이나 모래언덕 위에 소형의 촌락을 형성하여 정착 또는 반 정착 생활하였다. 뿌리와 줄기가 있는 일부 근경 식물, 음식물을 재배한 그들은 이미 원시 농업 기술을 알고 있었다. 수렵, 어로 그리고 채집 생활 역시 중요한 생산 활동이었다.

장빈문화의 하한과 대분갱문화의 연대가 일정 시기에 중첩되면서, 두 문화가 대만에서 일정 기간 동시에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두 유적의 사회 문화 성격을 살펴보면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현재 대만 고고학자들은 대분갱문화가 장빈문화에서 자체적으로 발달 된 것이 아니고, 대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부터 건너온 새로운 문화라고 본다. 이러한 의견이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대만 선사 고고학 중요 출토 유물로 당시 거주인의 사회 성향이 드러나는 옥기 부장품이나 암각화, 석기 도구와 토기 사용인의 성격 때문이다.

대분갱문화는 중국 동남 연해안 지역에도 분포되어 있었고, 승문도기(繩紋陶器)가 특징인 중국 푸젠성과 광둥 연해안의 일부 문화와 상당히 가깝다.

26) 張光直이 1964~1965년까지 두 개의 유적지(台北현 八裏鄉 大盆坑과 高雄현 林園향 鳳鼻頭)를 발굴한 이후 대만의 선사 문화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토기 기형과 형식뿐만 아니라 문화 적응 상태와 제작 연대 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동서남북이 개방된 대만 섬의 지리적 조건상 푸젠성과 광둥 연해안에서 바다를 건너 대만 섬으로 직접 도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만의 대표적인 신석기문화 유형의 출현 연대는 BP 5000년 전에서 2000년 전 사이다.<sup>27)</sup> 현재 대만의 인구조 비추어볼 때 당시의 인구는 과거와 비교하면 이미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큰 촌락이 생겨났을 뿐 아니라 촌락의 분포 지역 역시 점차 해안지대를 떠나 내륙의 하천 계곡 방면으로 확장되었다. 이 단계의 주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그들의 생업 활동 중에 일반적으로 쌀 등 곡물을 심고 재배한 것이다. 이외에도 그들의 사회형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공예 기술 역시 이전보다 발달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의 기원들에 관해서는 문화마다 나타나는 시간과 지역상으로 서로 다른 점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분쟁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발달하기 시작한 것 외에도 어떤 문화들은 대만 인근 지역으로부터 이입되어 온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들 문화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 IV. 맺음말

최근 대만 고고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수용과 해외 교류(미국, 중국, 일본 등)를 통해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sup>28)</sup>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한국에 대만 고고학을 소개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일이다. 이는 동아시아

27) 대만 원주민 기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만 섬의 대표적인 신석기문화 유형에는 圓山文化, 芝山巖文化, 그리고 細繩紋陶文化다. 연대가 비교적 후대(BP 3500년에서 BP 2000년)의 중요한 문화 유형에는 植物園文化, 營捕文化, 大湖文化, 卑南文化, 그리고 麒麟文化 등이다.

28) 1988년 대만에서 계엄령이 해제되고 개방된 이후, 해외 유학·학술 교류의 기회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대만 고고학자들에게 세계로 나가는 문이 열렸다. 이후 정치·사회적 제약이 완화되고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남도어족의 이동과 발전, 동아시아 선사 시대 인류의 이동, 문화 변천 등 특정 주제를 다루는 해외 학자들의 연구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대만 고고학의 국제적 가시성과 영향력이 높아졌으며,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지닌 연구자들의 참여는 인적 자원이 적은 대만 고고학계에 새로운 다각적 시각을 제공하였다.

아 대만 고고학에 관한 연구 관점과 최근 연구 방향이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안(兩岸) 관계가 불투명했던 이전의 연구 자료를 재검토하기보다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만 선사 원주민의 기원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동남아시아 도서 연해안 고고학에서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대만 고고학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만 원주민의 기원과 확산은 중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물론 대만에 존재하는 일부 원주민 부족 집단문화에서 발견된 중국 화남지역의 매장 습속과 석기 문화 요소를 보면, 후대에 한인(漢人)들이 대량 이주하여 대만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중국 화남 지역과 대만 사이에 긴밀한 교류가 있었던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연해안에서 대륙과 태평양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대만 섬의 위치로 미루어볼 때, 해상 이동이 자유로웠던 당시 대만 원주민의 기원과 확산을 특정 부족(고산족 중심)의 분포 양상이나 거주 지역에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대만의 초기 원주민 일부는 약 3만 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화남 지역에서 대만으로 이주했다. ‘장빈문화’는 중국 화남의 구석기문화와 같은 전통에 속하며, 그 주체인 ‘좌진인(左鎮人)’은 가장 먼저 대만으로 이주한 주민 중 하나였다. ‘대분갱문화’, ‘원산문화’, ‘봉비두문화’의 후손은 현재 대만 원주민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남도어족 문화와 유사성이 많은 대만 원주민의 조상은 중국을 거쳐 남서 지역으로 이주한 뒤, 해상 이동을 통해 대만 동해안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 서남부 지역을 거쳐 간접적으로 전래한 원주민 문화로, 중국 남서 지역과 유사한 대만의 석관·거석문화와 관련이 있다.

셋째, 남도어족의 기원과 대만 원주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만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대만 원주민의 기원 연구’와 함께, 도서 연해안 고고학에 대한 대만 학계의 관심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최근 대만 도서 유적에서 출토된 연대와 성별이 구분된 亮島人 1호·2호 인골과 평후(澎湖)섬에서 확인된 홍적세 호미닌 계통의 데니소바인 하악 골(Penghu 1)<sup>29)</sup> 등은 연구 대상의 확장 차원에서 매우 흥미로운 자료

29) 호미닌 하악골(Penghu 1)의 고대 단백질 분석 적용 연대: 10,000 - 70,000년 전 또는 130,000 - 190,000년 전

Takumi Tsutaya et al. (2025). “A Male Denisovan Mandible from Pleistocene

를 제공한다.

넷째, 생태환경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지역문화의 특수성과 그 과정적 변화를 고려하여, 인류의 보편적 진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연해안 고고학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최근 강화되고 있다. ‘대만 원주민의 기원과 확산’ 문제에서 남도어족과 대만 원주민의 관계 유무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지속해서 발표되면서, 이제 동아시아 도서 연해안 고고학은 대만 구석기·신석기 고고학 이해의 필수 영역이 되고 있다.

한반도는 대만 선사 원주민과의 직접적 관계 유무를 떠나 반도 지역이다. 해양 문화권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남방문화적 요소는, 위안리(2005)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단순히 남방 문화의 한반도 전파나 사용인들의 이주라는 일방적 문화전파론으로만 해석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해양 문화적 요소와 바다를 통한 동북아시아로의 이동. 둘째, 해상 이동 수단을 제작하기 위한 석기 기술의 발전. 셋째, 해상 이동 석기 사용 집단의 교류 활동. 대만 해협을 통한 해상 이동과 대만 원주민의 기원·확산에 관한 연구는 동아시아 도서 고고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왔다. 이는 동북아시아 고고학의 주요 연구 지역인 한반도에서 관찰되는 남방문화적 요소의 기원을 해명하는 데에도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은 연구사-문화-기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국내 학계에 대만 고고학 연구의 학술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 향후 연구는 첫째, 한국과 동아시아 신석기문화의 비교 연구, 둘째, 최신 유전자 연구와의 접목, 셋째, 고고학·민족지학·언어학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더욱 정밀한 해양 문화사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대만은 단순한 지역적 연구 대상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해양 문화사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공간이다. 대만 고고학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학문적 가교로서, 앞으로도 국내 학계의 주목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 참고문헌 |

1. 논문, 단행본(번역서 포함)

- 이기성, (2020), “일본 고고학 형성기의 식민지 고고학: 초기 대만 고고학을 중심으로  
= ‘Colonial archaeology’ in formative period of Japanese archaeology.  
『백산학보』 . Vol.0 No.118, pp 461-482.
- 위안리 (2005). 『도작 문화로 본 한국문화의 기원』. 최성은 역, 민속원.
- 배진성 (2000). “韓半島 柱狀片刃石斧의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
- 배진성 (2013) “柱狀片刃石斧의再檢討”. 『韓國上古史學報』 第82號, pp 5-25.
- 원중호 (2001) “한반도 유구석부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
- 원중호 (2025) “대만 원주민에 관한 고고인류학적 일고찰”, 『도서문화』 vol 65, pp 179-204.
- Chang, Kwang-chih (1986). *The Archaeology of Ancient China* .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siao-Chun HUNG, (2004), “A sourcing study of Taiwan stone adzes”,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Natural History』,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Australia
- Liu Yi-chang (2012) “An Overview of Recent Archaeological Research in Taiwan”.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研究員, 國立暨南國際大學人類學研究所合聘教授 제공 자료.
- Mike T. Carson & Hsiao-chun Hung (2014) “Semiconductor theory in migration: population receivers, homelands and gateways in Taiwan and Island Southeast Asia”. *World Archaeology* Vol. 46(4), pp 502-515.
- Mike T. Carson & Hsiao-chun Hung (2018) “Learning from Paleo-Landscapes Defining the Land-Use Systems of the Ancient Malayo-Polynesian Homeland”. *Current Anthropology*, Volume 59,
- Peter Bellwood (2017) . *First Islanders: Prehistory and Human Migration in Island Southeast Asia* . Hoboken: Wiley Blackwell.
- Tsang Cheng-hwa (1992) “Archaeology of the Penghu Islands”,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PP118-120
- Takumi Tsutaya et al (2025) “A Male Denisovan Mandible from Pleistocene Taiwan”. *Science* 4.
- 宋文薰 (1980) 『中國的台灣』. 臺北文物供應社.

- 劉益昌 (1992) 『臺灣的考古遺址』. 臺北縣立文化中心.
- 臧振華 (1996) 『台灣考古』. 台灣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
- 劉益昌 (1996) 『臺灣的史前文化與遺址』. 臺灣省文獻委員會.
- 張光直 (1999) 『中國考古學論文集』. 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 劉益昌·郭素秋 (2000) 『台北市考古遺址調查與研究』. 台北市民政局.
- 陳仲玉·邱鴻霖 (2013) 『馬祖亮島人島尾遺址群發掘及「亮島人」修復計畫』. 連江縣政府.
- 邱鴻霖·陳有貝 (2016) 『左鎮人再研究』. 國立臺灣博物館.
- 王巍總主編 (2014) 『中國考古學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 吳密察 (1982) “臺灣東部卑南文化的發展與特徵”.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51卷.
- 王仁湘 (1987) “關於我國新石器時代雙肩石器研究”. 『南方民族考古』 1期.
- 傅憲國 (1988) “論有段石鏃和有肩石器”. 『考古學報』 1期.
- 張光直 (1989) “新石器時代的台灣海峽”. 『考古』 6期.
- 臧振華 (1989) “試論台灣史前史上的三個重要問題”. 『考古人類學刊』 45期.
- 臧振華 (1990) “略論台灣的細繩紋陶文化”. 『浙江學刊』 6期.
- 臧振華 (1999) “台灣考古的發現和研究”. 『東南考古研究』 2輯, 廈門大學出版社.
- 王吉懷 (1995) “凸形石器考”. 『農業工具』 3期.
- 連照美 (2000) “台灣東部新石器時代卑南聚落形態初探” 史前研究, pp623-636.
- 吳衛·王銀平·李福生 (2001) “台灣海峽區域視野下南島語族起源與擴散的考古學觀察”. 『東南文化』 5期.
- 孔夢悅 (2011), “試論台灣地區的石板棺墓”, 中央民族大學 碩士
- 陳仲玉 (2009) “卑南文化與臺灣史前聚落的社會構造”. 『考古人類學刊』 64期.
- 吳春明 (2008) “中國東南與太平洋的史前交通工具”. 『南方文物』 2期.
- 李玉文 (2011) “鳳鼻頭文化與大湖文化的關聯性初探”. 『南島考古研究』 4期.
- 葉美珍 (2015) “館藏台灣西部大坵坑文化陶片刻劃紋研究” 『南島研究學報』 第6卷 1期.
- 董建輝·徐森藝 (2022) “閩台史前文化與南島語族”. 『考古』 10期.
- 張光直 (1987) “中國東南海岸考古與南島語族起源問題”. 『南方民族考古』 1輯, pp 1-12.
- 陳存洗 (1994) “從考古學看台灣文化的起源”. 『福建師範大學學報』 4期, pp 103-109.
- 陽吉昌 (1995) “略論台灣“左鎮人”的發現及有關問題”. 『考古與文物』 3期, pp 56-61.
- 杜樹海·郭健新 (2023) “南島語族的起源與擴散: 成果、爭論與新的解釋”. 『廣西民族大學學報』 2期, pp 40-53.
- 廖楊 (2000) “台灣族群文化分析”. 『貴州民族研究』 4期, pp 99-110.
- 廖楊 (2001) “台灣早期移住民的史前文化述論”. 『貴州民族研究』 2期, pp 107-115.

- 劉益昌 (2000) “圓山文化年代檢討－兼論臺北盆地史前文化變遷”. 『北臺灣鄉土文化學術研討會論文集』, 政治大學歷史系.
- 劉益昌 (2002) “臺灣史前文化層序研究的省思”. 『石璋如院士百歲祝壽論文集』. 南天書局.
- 王新天·吳春明 (2007) “關於台灣原住民研究的幾個問題”. 『廣西民族研究』 1期, pp 30-37.
- 姚同發 (2007) “左鎮人: 大陸開發台灣 第一人 — 台灣曆史文化淵源之一”. 『黃埔』 1期, 黃埔軍校同學會.
- 臧振華 (2008) “澎湖七美島史前玄武岩石器工業與其貿易體系”. 『中央研究院史語言研究所80週年學術研討會台灣史前史專論 1-14』,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 邱鴻霖·陳仲玉 (2013) “馬祖亮島島尾 I 遺址出土人骨研究”. 『“金關丈夫文庫贈藏紀念展暨跨領域的南方考古學國際研討會”論文集』. 台灣大學.
- 陳愼·唐湘 (2014) “南島語族的福建海洋族群印記”. 『福建省社會主義學院學報』 1期, pp 81-84.
- 何平 (2015) “南島語民族的起源與東南亞現代南島語系諸民族的形成”. 『廣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期, pp 88-95.
- 陳仲玉·黃運明 (2018) “亮島爺爺的海峽考古情－陳仲玉先生訪談錄”. 『南方文物』 3期, pp 13-17.
- 付琳·官民夥 (2019) “<重建海上絲綢之路史前史: 東亞新石器時代海洋文化景觀>國際學術研討會綜述”. 『南方文物』 3期, pp 236-242.
- 洪曉純, 婁文台 (2024), “華南沿海、台灣和島嶼東南亞的早期航海与文化: 公元前6000年至公元前500年” 南方文物 1期, pp 224-234
- 盧柔君 (2025). “臺灣考古學的誕生與變革: 與時代共進的考古學發展史 = *The Birth and Transformation of Taiwan Archaeology: A Historical Development in Response to Changing Eras*” 『東洋學』 Vol.- No. 99, pp 1-36.

## 2. 기타자료

“國立臺灣史前文化博物館 考古學習網” <https://archae.nmp.gov.tw/>-(2025년 07월 24일 검색)

“芝山岩文化的陶器”(2025년 02월 16일 검색)

[http://ci6.lib.ntu.edu.tw/tamsui/subject/subject-2/pre\\_chihshanyen\\_pottery.html](http://ci6.lib.ntu.edu.tw/tamsui/subject/subject-2/pre_chihshanyen_pottery.html)

“台大人類學系” <https://anthro.ntu.edu.tw/> (2025년 10월 31일 검색)

“考古動態最前線! 大肚營埔遺址搶救發掘速報” <https://epub.nmns.edu.tw/j202302-1>

(2025년 02월 16일 검색)

“南科考古館” <https://stsp.nmp.gov.tw> (2025년 10월 20일 검색)

“國立臺灣歷史博物館典藏網” <https://collections.nmth.gov.tw/index.aspx> (2023년 12월 04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5년 10월 22일 |

| 논문심사일 : 2025년 10월 28일 |

| 게재 확정일 : 2025년 11월 06일 |

| ABSTRACT |

## **The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Neolithic Archaeological Studies in Taiwan**

**won joong ho**

(Researcher, Institute of East Asian Archaeology)

This study reviews research trends in Taiwan's Neolithic archaeology and analyzes the methodological transformation and academic significance that emerged in the process. Beginning with early 20th-century surveys by Japanese archaeologists, the field developed through postwar excavations and typological studies by Taiwanese and Chinese scholars. Since the 1980s, scientific methods such as radiocarbon dating, pollen, and genetic analyses have shifted research from cultural comparison toward ecological and population-based interpretation. The study contributes by establishing a diachronic framework for East Asian maritime archaeology, integrating interdisciplinary data to clarify indigenous origins and interaction networks, and highlighting the role of scientific innovation in transforming archaeological inquiry.

- Keywords: Neolithic Taiwan, Archaeological Historiography, Kwang-chih Chang, Maritime Cultural Sphere, Interdisciplinary Approach